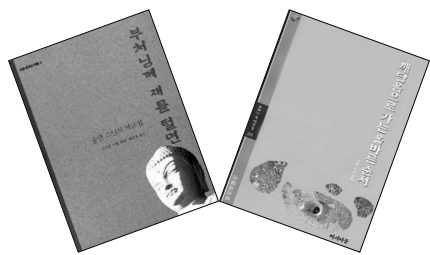


출판가 소식

여시아문 도서 2권, 대학 교재로



불교전문 출판사 여시아문이 출간한 <부처님께 재를 털면>과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가 각각 서강대와 동국대의 교양강좌 교재로 사용된다.

이번 학기부터 서강대 종교학과 개설 전공과목인 '참선과 삶'의 강의를 맡게 된 현각 스님은 화계사 조실 승산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부처님께 재를 털면>(스티븐 미첼 엠크, 최윤정 옮김)을 교재로 채택했다. 이 책은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에 앞장 서 온 스님이 미국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와 법문, 편지 등 100여 편을 묶은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강의하는 김성철 교수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초벨 스님 편역)를 4년째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티베트 출신의 초벨 스님이 티베트 불교의 대표종단인 겔룩파의 성전인 <보리도차제론>을 번역한 이 책은 <보리도차제론>의 유래와 가르침을 듣는 방법, 올바른 수행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작은 책 안에 불교의 방대한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교재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한다.

獨 국제도서전에 소개할 '한국의 책 100'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등 불서 5권 선정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선정된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은정희 역주, 영어), <지눌의 선사상>(김희성 지음, 목어), <선가귀감>(법정 스님 옮김, 영어), <한국선사>(김갑진 역주, 영어), <Korean Buddhism: Tradition and Transformation>(심재복 지음, 목어) 등이 소개된다.(팔호 안은 지은이, 번역 언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강숙) 산하 선정위원회(위원장 황지우)는 3월 8일 위의 불서 5권을 포함, 도서전에 번역·소개할 '한국의 책 100'을 선정했다.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한국문화번역원 추천도서, 출판사 신청도서 등 3천500여 종의 도서 가운데서 100권을 가려 뽑은 것이다.

이들 도서는 각각 영어(46종), 목어(23종), 불어(10종), 일어(8종), 스페인어(7종), 중국어(6종)로 번역되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특집 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禪 수행서 한자리에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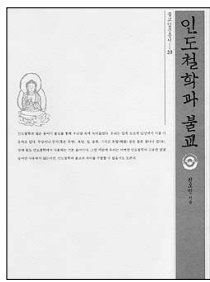
여시아문 전문코너 마린 최근 불교 있는 수행열풍에 발맞춰 수행관련 서적 출간도 붐을 이루고 있다.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은 수행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다양한 서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선수행서 전문코너'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백일법문>, <불교수행법강의>, <화두참선> 등의 개론서에서부터 <선의 역사와 사상>, <선의 세계>, <간화선>, <묵조선 연구> 등의 전문 서적 50여 종을 선별해 전시하고 있다.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법문을 하는 고우 스님과 무어 스님, 해국 스님, 현웅 스님 등 12명의 스님들이 직접 쓴 책과 법문 녹음테이프 등도 구할 수 있다.(02)737-0695

떠려야 떨 수 없는 고대인도와 불교

인도철학과 불교

권오민 지음
민족사 / 1만3천원



동일한 사유구조 등 사상사적 기반 살펴

경상대 권오민 교수는 <인도철학과 불교>에서 인도철학과 불교의 관계와 그 흐름을 조명하고 있다. 대학에서 '인도철학과 불교'를 강의하고 있는 지은이는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간된 책을 교재로 사용하다보니 어느 해에는 인도 철학을, 어느 해는 불교를 중심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론서를 대부분이 역사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불교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기술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불교는 단일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전개된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은이는 '인도'라는 동일한 풍토와 사유구조 속에서 발생한 인도철

학가 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 인도(현재는 네팔)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가 고대 인도의 사상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최근 불교가 고대 인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사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두 권의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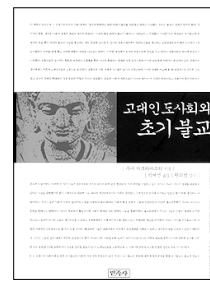
학과 불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책을 시작한다. 먼저 정치적 격변과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인도철학의 일반적 특성을 살핀다. 이어 '인도의 전통철학'에서는 <우파니샤드>와 <마가바드 기타> 그리고 인도의 반(反)전통철학인 차르바카의 유톨론, 자이나교의 고행 등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인도의 불교철학'은 초기불교의 가르침부터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의 성립배경과 그 사상, 중관학파의 기원과 사상 유식, 여래장 사상의 기원과 발전과정 등을 짚어 보면서 보는 순서로 구성된다.

<인도철학과 불교>가 불교의 사상사적 기반과 그 흐름을 살폈다면 <고대인도사화와 초기불교>는 고대 인도의 시대적 상황을 살피고 있다.

델리대학 미란다 하우스 교수인 우마 차크라바르티는 불교가 생겨나고 발전해 온 당시 사회 속에서의 의미를 파악한다. 지은이는 "초기불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붓다의 가르침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의 신물로서의

고대인도사화와 초기불교

우마 차크라바르티 지음 / 박재선 옮김
민족사 / 1만5천원



정치·경제·종교 등 당시 사회상 고찰

불교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부처님이 살았던 B.C. 6세기 인도의 정치·경제·사회·종교적 환경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탄생하고 자리매김했는지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영역의 확대, 정치적인 통합, 새로운 사회·경제적 계급의 대두로 특징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사상을 일으켜 세우고자 한 부처님의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사회 경제적 주요 계층으로 대두된 '가사(gahapati)'의 뜻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성장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화두참선

이계목 역해
우리출판사 / 1만3천원

참선 이렇게 하라



"수마(졸음)가 올 때는 마땅히 이것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달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화두를 한두 번 소리 내어 들어라."

10여 년 가까이 출가수행을 하다 환속한 후 수행과 집필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이계목 씨가 수행 지침서 <화두참선>을 펴냈다. 이 책은 선어록에 담긴 가르침을 가려 뽑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참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좌선할 때는 마음가짐', '화두는 머리

로 푸는 것이 아니다', '선정 중에 도 화두는 놓지 마라' 등 실제 참선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역대 선사들의 수행일화를 모은 <선의 뜰에서 거닐다>를 펴내기도 한 지은이는 "지혜는 마음을 닦는 데서 나오며, 마음을 닦는 법은 참선 밖에 없다.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자아 성찰을 해야 한다"며 "자기 내면의 마음을 관조하다보면 참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새로운 책

■ <다보탑>(인암지) 대구 MBC, 이른아침=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는 천년 고찰 불국사가 있고, 그곳에 다보탑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다보탑을 보고 그 안에 담긴 뜻과 아름다움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제작 방영된 대구MBC 창사 40주년 기념 특별 다큐멘터리 '다보탑'을 책으로 묶은 <다보탑, 부처의 자비와 신라 장인의 숨결>은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행을 찾기 어려운 다보탑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으며 탑에 담긴 미학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창사 39주년 기념 특별 다큐멘터리 '우리조경'도 책으로 펴냈다.

■ <남북의 단청>(민족공동체추진본부 엮음, 비매품)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한 '북한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협력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소개한 <남북의 단청>이 발간됐다. 책에는 그동안 추진된 단청불사 협력사업 실사보고서와 학술토론회 원고, 북한사찰의 단청현황 등이 사진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02)720-0531



■ <유심 2004년 불호>(만해사상실천학회 엮음, 7천원) = 이번 호에서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인 효림 스님의 대담과 시인 최동호, 김영재 씨의 시세계를 조명하는 특집, '제2회 유심작품상' 수상자인 정팔별, 고정국, 방민호 씨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통 스님	효림
2	백일법문	정철 스님	장경각
3	화	턱 닷 한	명진출판사
4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김영사
5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립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6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7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8	운명을 뛰어넘는 길	김지수	불광
9	대승인능가경 의	동국역경원	동국역경원
10	법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생명의 빛 신등의 비밀공개

-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파, 생체에너지파, 슈뢰딩거의 파동, 마이크로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과장은 피부 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어 세포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마괴된 염색체)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결은 바로 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미량원소 조절의 신비에 있다.)

※ TDP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분은 우송해드립니다.

미국 FDA검증(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여 01-506호)

모든 기증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

-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정맥으로 고생하시는 분
- 배관질 증상(하리, 무릎, 목, 팔) 각종 통증으로 땅기고 절인 증상 등
-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찬, 가슴이 뛰고 답답함, 한기증, 손발 배가 냉한 증상
- 장기간 외병 생활로 등창 목창이 심하신분
-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소화가 잘안되고 깊은 잠을 못자는 분
- 고질적인 치질·치루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폐경증상)
- 피부중심(여성) 세균성 피부질환, 화상이 잘 안발는 거친 피부
- 전립선 기능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이 많으신분

유교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방람회 은상 수상

-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신과 의학회 200명제의 실험자료
-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 한국 95년도 보건복지부 인정 독점수입
- 한국 각 종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백세 (특정 TDP치료기) 상담전화 02)457-2831-2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초급·중급·상급·고급 각 3개월 과정
- 명상·사법과정 각 1년
- 지도: 보덕현호선사
- 수강료: 3만원(월1만원)
- 개강: 4월 7일(수) 오후 4시
- 접수: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 전화: 02)312-1100
- 위치: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내

법안명상기공회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 매장묘 및 납골묘 설치
-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031-775-0114



경면주사 100% 해월법사의 생필(100점 한정) 신비의 부적 팔만대장경 부적을 아십니까?

팔만대장경 부적은 고탐에서 출토되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신비하고 영험스러운 말로 다 할 수 없다 영가에 시달리는 가정 입시생 사업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고 해월법사가 260자 한자 한자 기도하며 경면주사로 사경하고 달마도를 넣어 그 기를 충만케 하고 특히 화염경 80권을 천일기도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 경면주사로 사경중이며 각종 병풍 진언달마도등 부자들이 소장하고픈 많은 작품이 있어 답답하고 고민 많으신 분 연락주세요. 홈페이지도 보세요!



www.ajeaje.co.kr
전화 055)648-5093
H.P 011-231-5094
주문신청:
농협 823031-52-042561
예금주: 김수영
작품크기: 가로 50cm 세로 120cm
사경 기도 도량 팔만대장경 마을 건립 불사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01-5